월주스님-朱복지장관 · 이협의원 환담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14일 주양자 보건복지부 장관의 예방(사진 위)을 받고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노숙자 보호대책등 불교계 복지사업에 관해 환담했다.

월주스님은 "종단이 복지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각종 사업을 추진해 좋은 성과를 얻고 있으나 불교의 복지시설 위탁율은 전국 시설의 6%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요청했다. 주장관은 "김대중 대통령이 종교계의 복지 사업을 적극 협력하라고 지시했다"며 불교계의 복지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월주스님은 국민회의 이협의원(전북익산)의 예방을 받고 익산미륵사지 복원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월주스님은 "불교계는 황룡사지와 미륵사지의 복원을 장기적인 숙원문제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협 의원은 "익산 지역민들은 종교를 초월해 미륵사지의 복원을 원하고 있으며 이는 김대통령의 지역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학계의 고증문제가 복원의 걸림돌이 된다면 인근지역에라도 미륵사를 복원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금강국수공장 후원회 발족

선곡 · 정련스님 · 김도현씨 공동의장

금강국수공장 후원회가 17일 서울호텔에서 1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됐다.

조국평화통일협회(회장 법타)가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북한 사리원에 설립한 국수공장을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돕기위해 철웅(쌍계사 주지) 정련(내원정사 주지)스님, 김도현씨(전 문체부 차관)를 공동회장으로 한 금강국수공장후원회를 발족시켰다.

부회장에는 법일(기림사 주지) 원행(삼화사 주지) 원행(안국사 주지) 보선(대흥사 부주지)스님, 김재일(동산반야회 회장), 지현정사(진각복지회 사무국장)를 각각 선임했다. 또 30여명의 중앙위원을 위촉했다.

◇선곡스님 ◇정련스님 ◇김도현씨

선곡스님은 "금강국수공장 후원은 우리 불자들이 북한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창구이다"면서 "한번의 성과보다 북한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김도현씨는 "불교계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 인사를 후원회원으로 영입해 금강국수공장 후원회가 공식력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문중화합 · 도제양성에 최선"

동화사 새 주지 당선 성덕스님

"투명한 사찰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교구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일 산중총회의 경선을 통해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후임주지로 선출된 성덕스님(송림사주지)은 "큰 소임이 맡겨진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간의 화제를 모으며 실시된 후임주지 경선에서 투표인 109명중 49표를 얻은 스님은 "큰 스님들이 양보해 주신 덕분"이라며 문중의 화합과 도제양성, 포교에 매진해 영남불교를 선도하는 동화사가 되도록 면모를 일신시키겠다는 포부를 비쳤다.

성덕스님은 66년 벽봉스님을 은사로 동화사에서 득도, 통도사 강원에서 대교과를 마쳤다. 90년 대구사원주지연합회 수석부회장을 거쳐 94년부터 조계종 제11대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스님은 총무원의 임명절차를 거쳐 현 주지 무공스님의 임기가 끝나는 5월 23일을 전후해 주지직에 취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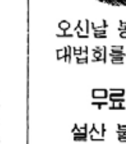
대구=이윤호 기자

교차로

회재민에 성금 · 백미 전달

현해 월정사주지는 9일 '사천지구 산불피해 주민돕기 자비의 탁발'에서 모금된 5백50여만원과 백미 5가마를 강릉 시청에 전달했다.

서울청장 취임 축하법회



동광 서울지방경찰청 경승실장 스님(도선사 주지)은 17일 부처님오신날 봉축 및 청장 취임기념 대법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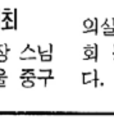
무료 합동결혼식 개최

설산 불교사회복지회장 스님은 5월6일 오후1시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 '무료합동결혼식'을 개최한다. (02)303-0024

이학송 수석교법사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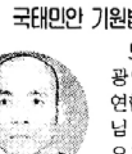
일면 광동학원이사장 스님은 광동학원 산하 3개학교(광동종고 · 여고 · 중) 수석 교법사제를 도입, 15일 이학송 법사를 수석교법사로 임명했다.

경찰병원 봉축법회에 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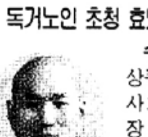
각현 연꽃마을이사장 스님은 30일 오후6시30분 국립경찰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병원내 직원불자법우회 봉축법회에 참석해 법문한다.

국태민안 기원법회



도해 인천광역시불교연합회장 스님은 23일 오후5시 오림포스호텔 대연회장에서 '국태민안과 인천시민을 위한 불교지도자 기원법회'를 봉행한다.

독거노인 초청 효도관광



수봉 경북 상주시 냉림사회복지관장 스님(남장사 주지)은 10일 상주지역 독거노인 130명을 초청해 노인효도관광을 실시했다.

호국영령 위령재 봉행

성관 6사단 호국청원사 주지 법사는 24일 오후1시 전몰장병을 위한 호국영령 위령재를 봉행한다.

홍법대상 상금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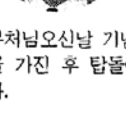
박영동 동대부고 교법사는 11일 전국 교법사단 창립 29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홍법대상 상금 1백만원을 교법사단에 기증했다.

고려사 서울분원 개원

태연 일본 고려사 관장은 26일 서울반포동에 고려사 서울분원 부처님 점안식 및 개원식을 봉행한다.

태연스님은 "일본 땅에 버려진 태평양전쟁 30만명의 한인희생자 유골 수습과 '평화의 종' 조성불사를 범국민적으로 추진키 위해 개원한다"고 밝혔다. 원장은 시몽스님이 선임됐다. (02)3476-7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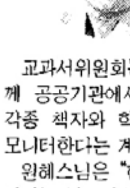
부처님오신날 연등 점등식



송석구 동국대학교 총장은 28일 오후 6시30분 동국대 불상 앞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연등점등식을 가진 후 탑돌이 행사를 연다.

"불교관련 편향 · 왜곡내용 시정"

조계종 교과서 연구위장 원혜스님



"교과서는 한 나라의 국민정신을 형성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같은 교과서에 불교 관련 내용이 자칫 소홀히 다루어지거나 편향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면 이 나라 미래에 커다란 위험이 초래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18일 발족한 조계종 교과서연구위원회 위원장 원혜스님(포교원 포교부장)은 교과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편향 · 왜곡된 불교 관련 부분을 바르게 고쳐가겠다고 밝혔다.

"교과서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운영해 교과서에 나타난 불교관련 내용을 연구하여 일선 교사들에게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잘못된 부분은 공청회 등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교과서위원회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책자와 학습참고서도 모니터한다는 계획이다.

원혜스님은 "현재의 교과서에는 불교관련 내용의 편향 · 왜곡보다는 편하하거나 상대적으로 소홀히 기술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고 "2천년부터 시행하는 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 맞춰 불교관련 자료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 중앙승가대 새 동문회장 효종스님

"재학생 지원모색…해외대학 결연도"

14일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선거에서 3백27명의 투표인 중 152표를 얻어 제4대총동문회장에 당선된 효종스님(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은 "동문들의 화합을 통해 장단기 계획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10여가지 사업 계획을 밝혔다.

스님은 우선 학교의 위상강화를 위해 졸업생들의 진로를 확대하고 해외 대학과의 자매결연, 외국인을 위한 한글불교교육 체계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다.

"중앙승가대 동문들이 포교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매년 1개씩의 포교당을 건립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라는 스님은 승려노후 복지를 위한 사업과 학교와 재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마련해 두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스님은 동문회의 조직을 강화시켜 동문회가 수행과 포교의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부 개설을 늘리고 동문 중심의 사찰과 포교당이 참여하는 연합회를 구성해 포교와 수행의 효율을 높힌다는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참선하니 고3 긴장 '싹'

Focus

4월9일 부산 해운대고등학교(교장 김창오) 강당에서 고3 수험생 620명이 결가부좌를 하고 참선삼매에 들어갔다. 이 학생들은 결가부좌로 가다듬은 자세에서 길게 내쉬고 짧게 들이쉬는 호흡으로 고3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단숨에 녹여 버리고 정신과 물질이 조화를 이룬 세계를 향했다.

이날 강의는 95년 히말라야 메라봉을 무산소 단독 등정해 최고령자 최고봉 등정기록을 세워 기네스북에 오른 박희선(前 서울대 교수)박사가 맡았다.

부산=천미희 기자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개인 모금 총액 724,510원(27명) △한 주 한끼굶기 625,000원(23명) ●나진 선봉시 북녘 어린이 결연 △개인결연 2,782,000원(76명) △청년정보문화 315,000원 △청년네트워크 200,000원 △진보사회를 향한 사회 140,000원 △정토포교원 아니룻다회 410,000원

〈4월15일 현재 총 981,369,722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알솜 Alsom 은 수맥·전자파 차단과 단열을 동시에 해결!

수맥파

수맥이란 지층을 따라 맥상으로 흐르는 지하수를 말합니다. 수맥은 마치 인간의 혈관과 같아서 지하 깊숙한 곳의 미세한 물줄기 들이 모여 거대한 흐름을 만들고 쉼없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수맥에서 발산되는 자력의 자체 운동의 결과, 수맥이 흐르는 곳의 수직 상방으로 파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지표사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수맥파가 위로 발산되어 가공할 피해를 주게됩니다. 건물은 균열이 가고 지반은 무너집니다.
당연히 신체도 그영향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됩니다. 수맥파의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때는 우리가 잠을 잘때와 같이 움직이지 않을 때입니다.
하루 1/3이 수면시간이고 일하는 시간까지 수맥파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면 그 피해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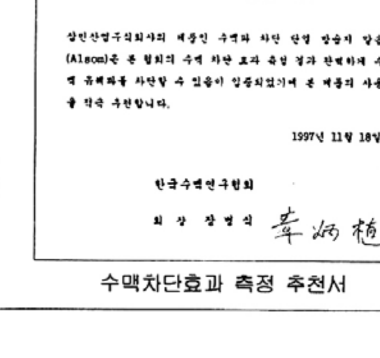
전자파도 우리가 알고있는 것 외에 인체의 아래로 수맥이나 보일러 파이프, 건축물의 철근, 전기장판등 주변 전도체 ⊖가 위치하고 인체의 위쪽으로는 주변을 지나는 고압전선과 천정의 가정용 전선, 전등, 철근 등 위쪽 전도체판 ⊕이 위치하여 하나의 축전지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 전기장 안에 우리 인체가 장시간 노출된다면 신체상의 변화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단열방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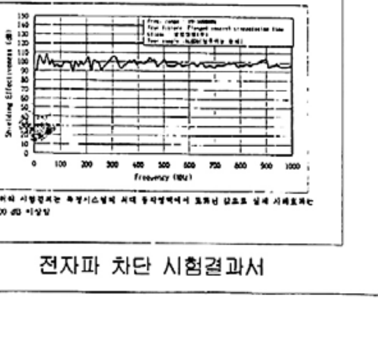
바람직한 난방 형태는 바닥은 따끈하고 상층 공기의 온도는 다소 낮은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등의 공동 주택 내에서는 위층의 난방열이 아래층의 천정으로 내려오는 기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열손실은 물론 아래층에는 바닥과 천정쪽의 온도가 같아져 머리가 맑지 못할 뿐더러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알솜(Alsom)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동시에 해결함으로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 드림은 물론 시공도 간편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알솜 Alsom 은 고순도 알루미늄과 복합소재를 사용하여 개발한 혁신적인 **신개발 제품**입니다.
● 알솜 Alsom 은 **수맥 · 전자파**를 차단하고 **단열**과 **방습**을 동시에 해결합니다.
● 알솜 Alsom 은 뛰어난 열반사율로 **냉.온열**과 **습기**를 효과적으로 차단시켜 **연료비**가 현저히 **절감**됩니다.

알루미늄, 동판을 사용한다고 모두 수맥파가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도와 두께가 일정이상이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알솜Alsom 은 수맥, 전자파 차단에 완벽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빌라 등 신축시 사용하면 완벽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수맥차단효과 측정 추천서



전자파 차단 시험결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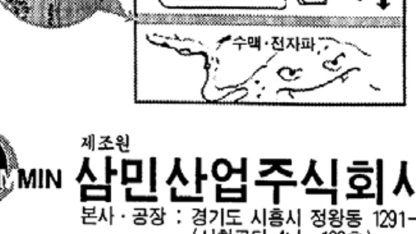
알솜의 종류 및 용도

알솜1000 ▶ 수맥, 전자파 차단과 단열·방습!
용도: 모든주택, 아파트등의 각종 신축 건축물의 난방 파이프 바닥과 벽체, 천정, 기존 건축물의 장판 밑이나 각종 침대

알솜500 ▶ 수맥, 전자파, 단열, 방습차단!(질기고 부드러운 재질로 만든 매트형 제품으로 이동이 간편함)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매트를 염가판매함) 규격: 1.2×1.9m 1.4×2.0m
용도: 방바닥 전기 장판, 담요 위, 매트리스(병원 침상 등), 텐트 깔개

알솜300 ▶ 단열, 방습, 방음, 충격완화(재질 사이에 에어캡 층 삽입으로 가볍고 사용폭이 다양함)
용도: 냉.온열 차단과 방습, 방음이 필요한 모든 건축물과 단열, 방습이 필요로하는 제품에 간편하게 사용 할수 있음.

알솜100 ▶ 단열과 방습(가격이 저렴한 제품)
용도: 모든 주택, 축사 창고등 건축물의 상·하 벽체.천정에 사용



제조원 SAMMIN 삼민산업주식회사
본사 · 공장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91-8 (시화공단 4나-109호)
TEL :(0345)498-5533(代)
FAX :(0345)498-8998